



사단
법인

배우고 가르치며 따뜻한 세상을 여는 초등돌봄 실천

초등돌봄교사연합회

성명서

담당 ☎ 02-2291-6566

홍보국장 윤혜숙, 사무총장 김지섭

배포일시 2020. 2. 24(월)

서울시중랑구 봉화산로 55-1, <http://ecta.or.kr>

교육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개학연기발표! 초등돌봄운영 정상화에
**“전국 초등돌봄교실 29만여 학생
 코로나에 무방비 노출심각!”**

-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월 23일 전국 모든 유초중등학교 신학기 개학연기에도 초등돌봄 서비스를 정상운행한다는 발표했다. 위생 수칙 및 시설방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을 제공 한다고 하지만 돌봄교실 현장에서 전해오는 목소리는 사뭇 다르다.
- 사단법인 초등돌봄교사연합회는 정부의 개학연기 발표에 따라 전국망으로 연결된 지회를 통해 긴급 조사를 실시했다. 코로나19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실태임에도 초등돌봄교실은 오전부터 저녁시간까지 쉼 없이 운영 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전국 6000여개 학교에 1만 3천여명의 돌봄전담사가 29만여명의 돌봄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 그러나, 이번 조사에 따르면 손소독제 및 학생용, 교사용 마스크 제공도 정규학급위주로 제공되며 방과후에 실시되는 돌봄교실에 별도 제공은 없는 상황이다. 체온계도 보건실에서 빌려다 쓰는 실정이고 특히, 방학중엔 보건교실 이용이 더 어렵다고 한다. 학교에 요청하면 돌봄교실 예산 있지 않냐고 되묻는다고 하며 돌봄전담사 개인이 준비하는 경우도 있었다.
- 초등돌봄교실에 방역물품 제공이 시급함과 함께 돌봄교실에서의 긴급아동 발생시 대처방법과 돌봄전담사 본인의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교육도 시급한 실정이다. 학교 개학연기와 함께 정부의 공식 비상사태 발생시 돌봄교실운영 안전에 대한 구

체적인 대책마련으로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에 대한 안전과 돌봄전담사의 안전 위협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 초등돌봄교사연합회는 초등돌봄 학생들과 전담사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개학연기에 따른 기간 동안의 돌봄교실 운영시 확고하고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요구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돌봄교실도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위해 위험상황이 종식될 때 까지 운영을 중단 또는 연기 해야한다.

둘째, 개학연기에 따른 기간동안 돌봄교실 운영시 추가로 수요학생이 늘어날 경우 돌봄의 소홀함 방지와 돌봄교실의 안전을 위해 보조교사를 배치해야한다.

셋째, 돌봄교실에서도 매일 발열체크를 실시 해야하며 학생용, 전담사용 마스크, 멸균티슈,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꼼꼼히 체크하여 제공하기 바란다.

넷째, 초등돌봄교실 학생과 전담사를 위한 안전수칙 및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다섯째, 정부는 초등돌봄교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과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모든 돌봄교실 이용학생과 모든 돌봄전담사가 학교안에서 위험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
끝.